

중국스토리텔링과문화컨텐츠

201903420 조재표

중국어통번역학과

도에이 동화 백사전 :  
일본 애니메이션의 시작,  
사랑과 마법의 서사극

일본 최초 컬러 장편

애니메이션의 의미와 유산

# CONTENTS

## 도에이 동화 백사전

I. 서론

II. 서사 구조

III. 작화 및 연출

IV. 철학적 기저

V. 상징과 서사적 은유

VI. 참고 문헌

# 01 서론

## 도에이 동화 백사전

- 전후 일본의 이미지 재건 욕구
- 도에이 애니메이션의 창립과 디즈니 모방
- 일본 최초 컬러 장편 애니메이션 탄생 (1958)
- 도에이의 야심: 아시아 시장 및 세계 진출



# 02 서사 구조

## 도에이 동화 백사전

### 1. 운명의 기원: 인연의 시작

어린 허선이 애완용 뱀을 부모의 강요로 놓아주며 이야기 시작

그 뱀은 인간으로 변신 가능한 백사령(백낭)이었고, 허선에게 사랑의 감정을 품게 됨

### 2. 재회와 낭만: 사랑의 꽃

수년 후, 백낭은 아름다운 인간 여성으로 변신해 허선을 찾아 인간 세계에 등장

두 사람은 재회 후 빠르게 사랑에 빠짐

허선에게는 귀여운 동물 친구들인 판다와 미미가 함께함

### 3. 충돌과 분열: 제도적 억압의 개입

불교 승려 법해는 백낭을 요괴로 간주하고 허선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들을 갈라놓음

법해는 백낭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녀를 퇴치하려 시도

허선은 마을에서 쫓겨나며 백낭과 생이별

# 02 서사 구조

## 도에이 동화 백사전

### 4. 모험과 갈등: 조력자와의 여정

판다와 미미가 허선을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며 동물 갱단과 엮이는 코믹한 서브 플롯 전개  
백낭은 법해와의 마법 대결을 감행하며 허선을 되찾으려 함

### 5. 사랑과 희생: 초월의 포기과 결합

백낭은 결국 자신의 초월적 존재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인간으로서 허선과 함께하기를 선택  
마침내 갈등이 해소되고, 백낭과 허선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 03 등장 인물 소개

## 도에이 동화 백사전

인물	특징	성우
백낭	주체적 요부형 여신	미야기 마리코
허선	순진한 인간 남성	모리시게 히사야
법해	질서 수호자 or 적대자	멀 웰즈
판다, 미미	조력자, 동물 갱단 리더	다수
소청	충실한 동료 뱀령	미아코 타카

# 04 시각적 특징

## 도에이 동화 백사전

- 풀 애니메이션, 로토스코핑 기법
- 따뜻하고 다채로운 색감, 대비 강조
- 디즈니 <백설공주>의 영향
- 일본 전통극 요소(오프닝 등) 결합

# 04 철학적 기저

## 도에이 동화 백사전

### 1. 법해(Fa Hai)의 도덕성: 보호자인가 억압자인가?

불교적 세계관 내에서의 해석:

법해는 인간 세계의 질서를 수호하려는 승려로서, '중생의 해탈'을 방해하는 악령(백낭)을 퇴치하려 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불교의 윤리관에서 자연스러운 역할입니다.

도덕적 모호성:

그러나 백낭이 단순한 악령이 아닌 사랑과 자율성의 의지를 가진 존재임을 감안하면, 법해의 개입은 타자의 삶을 억압하는 종교적 권력의 작용으로도 해석됩니다.

→ 이는 포스트콜로니얼 비평에서 말하는 "정의의 가면을 쓴 통제"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 04 철학적 기저

## 도에이 동화 백사전

### 2. 백낭의 존재론: 도교적 마법 수행 자

백낭은 천년 수행을 통해 도(道)에 접근한 초월적

존재입니다. 인간과 비인간(자연/정령)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랑이라는 감정에 충실한 인물입니다.

도교는 자연과의 조화, 형이상학적 존재의 유연성, 불사의

추구를 중시합니다. 백낭의 존재는 이 모든 특성과

부합하며, 그 자체로 도교적 여성 영웅의 계보에 있습니다.

# 04 철학적 기저

## 도에이 동화 백사전

### 3. 불교 vs 도교의 대립이 함의하는 바

세계관의 차이: 불교는 윤회와 업보를 통해 고통에서의 해탈을 추구하며, 도교는 초월과 불사, 변신을 통한 존재의 유연성을 강조한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 불교는 인간 중심적 깨달음을 중시하는 반면, 도교는 인간과 자연의 연속성과 조화를 중시한다.

질서의 방식: 불교는 계율과 제도화된 질서를 강조하며, 도교는 자율적이고 내면적인 수련에 기반한 자유로운 삶을 지향한다.

등장인물의 상징성: 법해는 규범과 억제의 권위로 불교적 질서를 대표하고, 백낭은 감성과 개별적 자유를 추구하는 도교적 초월 존재로 상징된다.

# 05 상징 및 서사적 은유

## 도에이 동화 백사전

### 1. 백낭의 '변신': 경계 초월의 서사

뱀 → 인간이라는 변화는 단순한 외형적 탈피가 아니라, 존재론적 전환(metamorphosis)의 은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화와 민담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상징 구조이자, 경계의 해체 또는 존재의 재정의의 지향하는 근원적 서사 장치입니다. 문예 이론의 관점에서 이는 질 들뢰즈(Deleuze)와 펠릭스 가타리(Guattari)가 논의한 “becoming”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즉, 인간-아닌-것(non-human)이 정체성과 욕망의 층위를 변이시켜 인간성에 접근하려는 운동성을 의미하며, 이는 정체성의 고정성을 해체하는 하나의 실존적 전략이기도 합니다.

백낭의 변신은 단순한 존재의 위장이나 사회적 위계 상승의 은유가 아니라, 감정, 사랑, 자율성이라는 인간의 윤리적 조건에 대한 진입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도교적 수행자의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는 행위이면서도, 그 능력을 인간성과의 접촉에 투입하는 윤리적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존재는 완전히 인간이 되지 않고, 인간성과 초월성의 사이 공간에 머뭅니다. 즉, 백낭은 '완전한 인간'이라기보다, 감정적 공명과 타자성과의 접촉을 통해 인간성을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녀는 이야기 말미에 이르러 자신의 불멸성과 초월적 존재성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사랑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존재의 고차원적 이상(immortality, transcendence)보다 감정과 관계, 인간적 윤리성을 우선하는 가치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 중심적 감정 윤리의 우위를 드러내며, 감정은 이성과 존재론보다 더 깊은 진실에 접속할 수 있는 통로임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해, 백낭은 '존재로서의 완전성'보다 '타자와의 윤리적 관계'를 선택함으로써 감정 기반 윤리학(emotive ethics)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셈입니다.

# 05 상징 및 서사적 은유

## 도에이 동화 백사전

### 2. '탑'의 상징성: 사회적 통제 장치

#### 1. 雷峰塔의 전통적 의미: 봉인과 배제의 상징

전통 설화에서 雷峰塔은 백娘子 갇히는 장소입니다. 이는 단지 물리적 구속이 아니라, 사랑의 죄, 욕망의 대가를 지불하는 장소입니다. 중국 민간 신앙에서 탑은 영적 에너지를 억제하거나 봉인하는 장소로 자주 쓰이며, 악귀나 위험한 존재를 '억제'하는 목적으로 세워집니다. 백娘子는 뱀이자 여성이며, 초월적 존재로서 이질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탑은 이 이질성을 전통 질서의 범주 내로 다시 가두기 위한 기호적 장치입니다.

#### 2. 탑은 감정과 여성성에 대한 제도권의 통제 욕망을 시각화한다

백娘子는 사랑이라는 감정의 주체, 감각적 몸, 자율적 욕망을 실행하는 여성입니다. 그녀를 탑에 가두는 것은 단순히 위험한 존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 질서가 수용할 수 없는 감정, 젠더, 자연성 자체를 제거하려는 욕망을 반영합니다. 즉, 雷峰塔은 단순한 '형벌'의 장치가 아닌 이데올로기적 공간으로 읽힙니다. 이는 푸코(Michel Foucault)가 말한 신체의 규율화(spatial disciplining of the body)와 맞닿아 있습니다.

# 05 상징 및 사서적 은유

## 도에이 동화 백사전

### 3. 서호(西湖): 운명과 낭만의 경계 지점

#### 1. 공간의 상징적 역할: “경계가 해체되는 장소”

서호는 단순한 배경 공간이 아닌, 현실과 초현실의 접경지로 기능합니다. 인류학자 빅터 터너(Victor Turner)가 정의한 전이공간(liminal space) 개념은, '두 체계가 충돌하거나 전환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창조성을 설명합니다.

즉, 서호는 현세적 질서(불교적 금기)와 초자연적 사랑(도교적 초월) 사이의 모순이 처음으로 겹쳐지는 장소입니다. 현실에서 허락되지 않는 사랑이, 이 호수에서는 가능해지고 공간 자체가 운명을 열어젖히는 기능을 합니다.

#### 2. 전통 시문학에서의 위치

서호는 중국 고전 시가와 회화에서 이상향(桃源郷)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승과 이계(異界)'를 잇는 환상적 장소로서, 욕망의 시학이 투사되는 장소입니다. 백낭과 허선의 첫 만남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설정은, 그들의 관계 자체가 비현실적이되 진실된 사랑이라는 암시로 작용합니다.

#### 3. '자연'의 역할: 인간 감정의 매개자

서호는 또한 자연 자체가 감정의 공명자가 되는 공간입니다. 이는 도교적 관점에서 자연은 사물과 인간 사이의 정신적 매개체라는 인식과도 연결됩니다.

따라서 서호는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정서적 운명을 상연하는 주체적인 공간입니다.

### 4. '은혜와 보은': 윤리적 고리와 여성의 주체성

#### 1. '은혜'에서 '사랑'으로: 유교적 윤리의 재해석

어린 시절 허선이 뱀을 풀어주는 행위는 전통 유교문화에서 말하는 '작은 선행'입니다. 그러나 이 선행은 이후 백낭의 인간화와 사랑의 계기가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보은 서사'를 넘어, 사적인 윤리(은혜) → 공적인 관계(사랑)로의 이행을 의미합니다. 즉, 감정이 도덕의 형태를 띠는 전환점이 됩니다.

#### 2. 여성의 주체화된 서사 구조

백낭은 보통의 보은 전래 서사처럼 '받은 은혜에 충성하는 여성 존재'로만 남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 선택, 책임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인물입니다. 도에이의 각색은 이를 감정의 실현을 위해 자신의 불멸성과 신분을 포기하는 여성의 자율적 선택으로 전개합니다.

#### 3. "보은"의 상호성 — 단방향이 아닌 순환적 윤리

전통 설화에서 '은혜를 갚는다'는 구조는 주로 단방향적 윤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백사전>에서는 백낭이 허선을 사랑하는 것만큼, 허선도 백낭의 희생과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이는 현대적 관계 윤리, 즉 감정의 상호성, 존재의 상호인정이라는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 05 상징 및 사서적 은유

## 도에이 동화 백사전

### 5. 허선 — 유교적 윤리와 가부장적 수동성의 상징

#### 1. 허선은 왜 그렇게 무력한가?

허선은 플롯 전반에서 능동적이지 않다. 그는 끌려다니고, 구원받으며,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무력함은 단순한 캐릭터 설계상의 결핍이 아니라, 유교적 윤리 질서 내 남성의 '역할 충실성'과 관련된 기호다.

- 그는 부모의 뜻에 따라 뱀을 풀어주고,
- 법해의 개입 앞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으며,
- 백낭이 주체가 되어 그를 구원한다.

#### 2. 유교적 군자상(君子像)과 수용적 도덕성

유교에서는 도덕적 인간(군자)이란, 적극적으로 욕망을 실현하는 존재가 아니라, 천명과 질서에 순응하며 덕을 내면화하는 존재이다.

- 허선은 능동적 선택보다는 \*\*도덕적 수용성, 즉 '감정적 평온 속의 윤리적 수동성'으로 구성된다.
- 그는 백낭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의 윤리성'을 실현하는 공동체적 통로가 된다.

> 즉, 허선은 유약한 남성이 아니라, 유교 질서 내에서의 감정 윤리의 수용체이며, 여성 주체성의 도덕적 매개자라는 상징적 구조를 갖는다.

**Thank you**